

[사회]



광주·전남 출신 '12번째 태극전사'

문화 접목 새 거리응원 펼친다

순수 문화단체 '모난돌'

2002년 6월 금남로를 비롯한 전국 대도시 거리를 뒤덮었던 "대~한민국"의 함성과 붉은 물결의 감동이 울리는 광주 북구청과 전대후문 일대에서 또 한번 재현된다. 독일 월드컵 한국전이 열리는 13일(토고)과 19일(프랑스), 24일(스위스) 전대후문 일대에서 광주지역의 대규모 길거리 응원 축제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번 응원 축제 중심에는 전남대 길거리 문화를 이끌어 온 광주지역의 순수 문화단체 '모난돌' (대표 한길우)이 있다. '모난돌' 회원들은 2002년 경기 관련 중심 응원에서 탈피, 문화를 접목시킨 새로운 응원 축제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자원활동가를 모집하고, 지역 인디밴드 선발 등도 마쳤다. 4일 오후에는 전대 후문에서 최종 리허설도 가졌다. 한국의 예선 첫 경기 토고전이 열리는 13일, 전대 후문에서는 개미장터와 수공예장터를 연다. 그 옆에선 '길거리 바다그림 대회'도 펼쳐진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3팀이 이미 참가 신청을 마쳤다. 오후 7시부터는 '록페스티벌'이 진행된다.

어제 가나전 전대후문서 첫 선

바다그림·록페스티벌 등 다채

학생·주부 등 온라인 회원 3천명

'광주 붉은악마'와 한미음 응원

슈가도넛(Sugar Donuts), 타카피(TACOPY), 러क्स(RUX) 등 젊은층에 알려진 밴드와 '전대후문 거리응원전 록페스티벌 오디션'에 통과한 ▲SELF-ESTEEM ▲Rabbit's foot ▲사운드마켓 등이 출연한다. 밤 10시 축제로 돌아오른 거리의 분위기는 '붉은악마 광주지회'(지회장 이준호)가 띄운다. 거리응원 참석자들은 공식 응원가인 '레즈,



문화단체 '모난돌'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전남대 후문 카페에 모여 한국 대표팀과 가나와의 최종 평가전 등 2006 독일 월드컵 거리 응원전에 대한 세부 계획을 확정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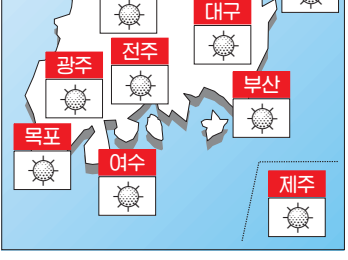
고 투게더'(Reds, go together)를 부르며, 북과 팡파리로 흥을 돋운다. '붉은악마'는 "그대들의 심장, 거리에서 박동하라"를 2006 거리 응원전 공식문구로 정했다. 이들은 19일 프랑스 전에도 전대 후문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 대규모 길거리 응원을 펼친다. 24일 스위스전은 토고전 승패 여부를 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행사는 순수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

간다. 현재 온라인 회원(cafe.daum.net/mo-nandolsaram)은 3천여 명, 오프라인 회원은 150~200명에 달한다. 학생·주부·회사원 등 연령과 직업이 다양하다. '모난돌' 한길우(34) 대표는 "보이지 않게 묵묵히 도와주는 사람들, 이들이 '모난돌'의 숨겨진 힘"이라며 "월드컵 응원은 우리들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덥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6월 5일 (음 5월 10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조금	16~28℃
부산	구름조금	16~25℃
대구	구름조금	16~22℃
대전	구름조금	15~25℃
전주	구름조금	15~29℃
서울	구름조금	14~27℃
인천	구름조금	14~25℃
안양	구름조금	14~29℃
울산	구름조금	14~25℃
경주	구름조금	15~26℃
충주	구름조금	14~25℃
청주	구름조금	16~30℃
포항	구름조금	15~29℃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남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남해북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5m
남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8:38 썰물 < 01:47
여수 밀물 < 03:41 썰물 < 10:17

▲해돋이 05:18 ▲해질 19:44 ▲달돋음 13:28 ▲달질림 01:23

날씨	6(화)	7(수)	8(목)	9(금)	10(토)	11(일)
최저/최고	17/30	18/29	19/26	19/26	17/27	18/28

가짜 영광굴비 수사랏 이야기

단오제 등 영향 우려 수사발표 늦춰 년 판매 2,500억...신뢰회복 급선무

중국산 조기를 가공, 영광굴비로 속여 판매한 영광지역 업자 6명이 목포해경에 입건(본보 6월3일자)됐다는 보도 이후 영광군과 제조·판매업체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지역경제의 제일 큰 버팀목인 굴비 판매량이 이번 파동 이후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영광지역의 굴비 판매량은 2004년 기준 2천500억여원(1만7천)이었다. 해경은 당초 4월 중순 내사에 들어가 굴비 생산업체들이 중국산 조기를 냉동탕에서 하역하는 현장을 포착했다. 또 5월 초엔 법원으로 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검찰에 송치하고 언론에 발표한 날짜는 6월2일로 한참 뒤였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영광에 전국단위의 중요한 행사에 정돼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5월 말에 ▲영광굴비골마라톤대회(5월28일) ▲전국국악경연대회(5월29일~30일) ▲법성포 단오제(5월30일~31일)가 열리는 점을 감안, 발표를 늦췄다는 이야기다. 민주당 이낙현(영광·함평) 국회의원과 김봉영 영광군수에 5월 둘째 주 각각 목포해경을 방문, "미꾸라지 몇 마리가 온통 물을 흐려 놓았다"며 "지역 주소득원인데, 주요 행사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의 굴비 생산·판매업체는 460곳. 이중 '영광굴비 특목사업단'은 정회원 79곳, 준회원 134곳이 가입돼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준회원들이다. 영광엔 이외 굴비 보존협회 81곳과 굴비 정보화마을 100곳이 있으나, 이번 사태로 모두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원산지 허위 표시는 눈 앞에 이익은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지역특산물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영광굴비의 명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엄정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평택 시위' 부상 서울대생 총학서 치료비 지원 논란

평택 미군기지 반대 시위에 개인적으로 참가했다가 다친 서울대생들의 치료비를 총학생회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다수결로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서울대 총학에 따르면 총학 총운영위는 지난 2일 밤 회의를 열어 평택 미군기지 반대 시위 부상자 7명의 치료비 198만1천750원의 지출을 전액 승인했다. 이번 치료비 지원 결정은 총학 총운영위 내 운동권이 다수결을 앞세워 비운동권 총학생회장단을 무력화(無力化)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제49대 총학생회 집행부가 아직 인준을 받지 못해 예산 집행이 정지된 상태

여서 실제로 치료비가 지급되지는 않았다. 황라열(29·종교학과 4) 총학생회장 등은 "기준도 없이 학생회비를 퍼주는 것"이라며 지원안에 반대했으나 회의에 참석한 단과대 및 동아리연합회 학생회장들 중 찬성이 많아 과반수로 가결됐다. 이번 지원 결정은 불법 정치시위에 개인적으로 참가했다가 다친 학생들의 치료비를 총학 예산으로 대겠다는 것이어서 서울대 총학 게시판에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지원안을 제출한 모 단과대 학생회장장이 지원 대상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되려면 실기시험 통과해야

보건복지부, 2009년부터 추진

앞으로 의사가 되려면 실기 시험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2009년부터 의사 국가고시에 환자에 대한 임상 능력을 다루는 실기 시험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필기 시험만 보는 현재의 의사 국가고시로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임상 능력이 없는 '반쪽짜리 의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기 시험은 필기 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필기 시험에 한한 합격하면 2번 정도 실기 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 의사시험위원회는 최근 '의사

처 의료법을 개정, 이르면 2009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내일 현충일 추모 사이렌

정부는 제51회 현충일인 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전국에 민방위 경보사이렌을 울릴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현충일에 울리는 민방위 경보사이렌을 적기 공습 등에 따른 민방공 대피사이렌으로 오인해 놀라지 말고, 경건한 마음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분위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연필기자 cki@kwangju.co.kr

애국의 향기속에 꽃피는 보훈문화

서경빌딩 임대

● 1층: 210㎡ - 주차장
● 2층: 150㎡ 빌딩 기어 - 사무실, 사무실
● 3층: 75㎡
● 4층: 150㎡ 빌딩 기어 - 사무실

● 1층: 210㎡ 사무실
● 2층: 150㎡ 사무실
● 3층: 75㎡ 사무실
● 4층: 150㎡ 사무실

165-8889(미)
165-7855(미)

수도 배관 (냉·온수·난방) 세정업체

엘케이크린(주)

수도배관은 청소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안심하십니까?

수도배관 세정 서비스

062-603-0799